

아트스펙트럼 인터뷰

태현선: 작년 12월 개인전에서 선보인 갯벌 요가 작업에 이어 아트스펙트럼 2012에도 요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신작 <태양예배자세-수르야 나마스카 surya namaskar>는 어떤 작업인가?

옥정호: 힌두어로 수르야 surya는 태양을, 나마스카 namaskar는 경배, 예배를 뜻한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한 예배인 '태양예배자세'는 고대 자연 숭배 사상의 일환으로, 절하며 소원을 비는 일종의 고대인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태양예배자세'는 요가의 가장 기본 자세 중의 하나다. 프로젝트 <태양예배자세>는 그 유래처럼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태양을 경배하는 것이다. 작년 <빨 요가> 때처럼 검정 양복을 입은 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출 직전의 푸르스름한 하늘을 배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 진지하게 태양예배자세를 하고 있다. 그 공간은 여의도 증권가이기도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집 골목이기도 하고, 혼잡한 밤을 지낸 명동의 새벽 거리이다. 누군가 혼자 밤을 보낸 밤 뉴시터의 새벽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앞마당일 수도 있다. 사실, 이런 현대 사회의 일상 공간에서 맞이하는 태양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계 정도의 역할일 뿐일 것이다. 그럼에도 해가 뜨는 새벽 시간은 이 작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벽은 매우 예민한 시간이다. 주위가 조금씩 밝아진다고 느낄 즈음, 순간 환해진다. 조그만 소리도 멀리까지 들리고 축축한 공기는 몸을 더 민감하게 만든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태양예배자세를 하다 보면 정말 이 행위는 제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태양예배자세는 고대인들의 의식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정월 대보름이면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 실제로 달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든 아니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흔히들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는 희망이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상징할 때 주로 쓰이지만 이번 '태양예배자세'에서 태양은 멜랑콜리에 더 가깝다. 이번 프로젝트는 멜랑콜리한 태양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연민이다.

태현선: '멜랑콜리한 태양'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이입 같다. 그리고, '멜랑콜리한 태양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연민'이라니 매우 감상적으로 들린다. 일상적 삶, 평범한 삶에 대해 작가가 품은 측은지심인가? 굳이 요가 동작 중에 예배자세를 택한 것은 일상에 대한 경의의 표현인가? 또, 새벽이라는 시간, 각 장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나 의미는?

옥정호: '멜랑콜리한 태양'은 영상에 나타난 태양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붙인 수사이다. 네 개의 영상 중 한 화면에서는 거칠게 '꼬끼오~' 소리를 내고 다른 화면에서는 경건한 태양예배자세를 하고 있다. 여기서의 내 감정은 자기연민이기도 하고 자기 조롱(?)이기도 하다. 또, 나를 빌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통상 경건한 마음가짐과 예배에 가장 적합하게 여겨지는 새벽 시간 역시 어떤 부조화의 맥락에서 택한 시간이다. 양복 입고 맨발로 태양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진지하지만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시간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장소들은 상징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아침을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한 곳들이다. 닭 울음소리를 내는 행위는 지금 세 들어 사는 우리 집 대문 위에서 한 것인데, 공간의 의미가 강해지게 되면 닭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상징적인 행위로 읽힐 것 같다. 각각의 장소에 큰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곳, 각기 다른 조건의 사람들, 그곳에서 만나는 태양들.. 이런 느낌을 따라 장소를 정했다.

태현선: 갯벌 요가 작업은 작가의 작업은 물론이고 작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게 했다. 갯벌의 먼 지평선을 배경으로 검은 정장을 입고 요가하는 모습은 속된 말이지만 문자 그대로 '빨갛' 그 자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고행스러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 수행으로 보여서, 마치 페이스스가 느껴지는 블랙코미디 같았다. 또한 작가의 모습에서는 치기 어린 현실 비판, 풍자, 조롱 등 그 이전까지 옥정호라는 작가의 색깔을 규정지었던 코드들 대신 '자성', '자기고백' 같은 새로운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갯벌 요가는 작업에 큰 전환의 축이라고 볼 수 있나?

옥정호: 5년 만에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인위적으로 스타일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이전 작업들에서 드러나는 '객기'는 나의 평소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 개인 성향이 작업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 '빨 요가' 작업에는 그런 객기나 호전적인 발랄함이 전혀 없다. 이때는 당시 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상당히 우울한 시기여서 그 영향이 가장 컸다. 그런 영향인지, 과거 작업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사실 예전부터 내 작업에서 '연출된' 기호성과 풍자 형식을 걷어내고 싶었다. 인위적으로 오브제를 찾아내어 그 앞에서 뭔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형식은 작업에서 보이고 해석되는 것 외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풍자 역시 마찬가지다. 풍자는 당연히 풍자의 대상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 대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결국은 그 대상으로 돌아오고 만다. 빨 요가 작업을 통해 변화를 준 것은 맞지만, 요가 작업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작업을 할 때 직관적이려고 노력한다는 점인 것 같다.

태현선: 갯벌은 일반적인 일상 공간과는 거리가 먼 자연환경이다.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엉뚱한 장소인 갯벌까지 갔다가 '태양예배자세' 작업에서 마치 속세로 돌아오듯 일상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빨에서의 요가는 엉뚱해 보이기엔 해도 수행을 위한 고행으로라도 보이지만 일상 공간에서의 요가는 사실 일견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일상 속으로 돌아오는 의도는 무엇인가?

옥정호: 빨에서 요가를 한다는 구상은 어쩌면 어릴 때 본 <공포의 외인구단>이나 <지옥의 링> 같은 스포츠 만화들에서 기인한 감성 인지도 모른다. 특히 섬에 갇혀서 쇠사슬 차고 야구 훈련을 하고, 자갈밭을 달리다 넘어지고, 빨밭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배팅 연습을 하는 그런 찌든한 장면들. 빨에서 하는 요가도 정말 '빨갛'이다. 빨은 몸이 빠져들고, 예리한 조개껍질 파편에 발을 베이기도 하는 곳이다.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요가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곳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해 요가를 한다.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 혹은 헛된 노력에 대해 측은한 격려를 보낼 수도 있고 조롱 섞인 야유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나 사실 한 번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여봤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동질감을 관객들이 느껴주었으면 한 것 같다. 새벽에 요가하는 모습도 사실 그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다분히 헛짓스러워 보이는, 목적이 없는, 생활 속의 무의미한 행동을 보여주고 싶었다. 때문에, 처음 <태양예배자세>를 구상했을 때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해를 쫓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새벽에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 그렇다고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일출 시간에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굳이 새벽 태양예배를 택했다. 밤을 새우고 일어난 사람 같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어머니 같기도 하다. 이 또한 상당한 '빨갛'이다. 더구나 양복에 맨발, 그런데 경건하게. 이 모습은 빨에서 요가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동작은 하면 할수록 상당히

제의적이 느낌이 묻어나는데, 그런 제의를 현재 이 도시에서 펼치고 싶었다.

태현선: <태양예배자세> 속 일상의 모습은 교회 참담, 예식장 같은 예전 작업의 키치적이거나 서울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환경에 비해 덜 대상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환경이다. 결국, 2000년대 초반의 작업은 작가가 서울 이주 직후 접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반응이었고, 이제는 그 환경에 익숙해져 무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선 답변 중에, '작업 때마다 직관적이라고 한다.'는 작가의 말이 이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풍자의 대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도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확실히 회피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옥정호: 그동안 내가 풍자하고 조롱했던 대상들은 현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여러 판타지였다. 예를 들어, 스스로 권위 없음을 알기에 이를 감추기 위해 올려붙인 듯한 한국 교회들의 참담이나 국회의사당의 돔, 동화 속 성 같은 결혼예식장, 서양 스타일의 한국식 전원주택, 헐리우드 액션의 영어마을, 스포츠 영웅 같은 소재들을 다루면서 나는 이 판타지들 이면에 가려진 우리의 현실의 씁쓸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실 씁쓸한 현실을 덮고 있는 판타지들은 내게 매력적이다. 또 도처에 많이도 있다. 그렇지만 매력적이라고 해서 계속 소재만 찾아다니다가는 어쩌면 내가 그 판타지에 매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비판은 사라지고 유희만 남게 될 것 같아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태현선: 논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표피적인 풍자와 가볍고 코믹한 조롱에 가까웠던 과거 작업은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으로 그 자체로 부박한 우리 시대와 문화의 한 단면을 담기에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반 대중의 눈과 정서에 맞닿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우리 미술계는 옥정호라는 작가에게 계속 유사한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선보였다. 요가 작업을 통해, 대상만 바꾼 동어반복 같은 작업에서 벗어난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한데, 남은 궁금증은, 요가 퍼포먼스를 통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옥정호: 내게 풍자와 유머는 사실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무겁다. 그래서 풍자라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예전에는 현실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했다. 그래야 풍자할 대상이 잘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점은 아예 현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풍자거리가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언가 내적인 행위인 요가 퍼포먼스 작업이 나온 것 같다. 예전 작업은 우스운데 진지했다면 요가 작업은 진지한데 우스운 상황인 거다.

TAE HYUNSUN You are showing a recent work, The Sun Salutations-Surya Namaskar in this exhibition with your photographs of performance work of yoga in a mudflat that you showed in

your solo exhibition last year. Please explain your recent work Surya Namaskar.

OAK JUNGHO The Hindustani words 'surya' and 'namaskar' respectively refer to the sun and to worship or salutation. 'Surya Namaskar' refers to the salutation to the sun rising at dawn. As part of ancient naturism, it was carried out at a sort of an ancient ritual in which people took bows praying for their hopes and wishes to be come true. And in modern yoga, it is one of the most basic postures. My project Surya Namaskar is based on its ancient origin and consists of saluting to the sun while looking at the sun rising at the crack of dawn. As in last year's Mudflat Yoga, where I was dressed in a black suit, I with a sincere heart assume the pose of 'Surya Namaskar' towards the direction in which the sun rises against the pre-sunrise bluish sky in the spaces of our daily lives. The spaces can be anywhere: the Yeouido stock market street, an alley in an ordinary residential area, a street at the peep of dawn in Myeongdong whose day and night are crowded with people, a night fishing place at dawn where someone wakes up after spending the night alone there, the front yard of my house. As you realize, the sun that we greet in these everyday spaces in contemporary society is no longer an object of our worship. It does nothing but what a clock does—to inform one that the day has begun. Nevertheless, the early hours when the sun rises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is work. Dawn is made of very delicate hours. By the hour when we feel that our surroundings brighten little by little, the first light of day suddenly hits upon us. A slight sound can be heard in the distance, and our bodies become sensitized by damp air. As you take a posture of 'Surya Namaskar' looking at the rising sun, your body appreciates that this sequence has really originated from some sort of rite. Most of us still pray to the first full moon in January by the lunar calendar. We seek comfort and solace by performing such an act, whether or not we actually consider the moon as the object of our faith. The image of the rising sun is very often used to symbolize hope or a better future. Yet in this Surya Namaskar the sun is more of melancholia. This project can be characterized as compassion for ourselves who are destined to receive a melancholic sun on arrival.

THS To a large extent, the expression of 'a melancholic sun' seems to imply the presence of empathy on your part. You also said, "compassion for ourselves that greet a melancholic sun." It sounds very sentimental. Does it betray your sympathy for everyday life, ordinary life? And is your selective of a worshipping pose among a number of yoga poses, a token of your respect for everyday life? Also,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for you to have chosen the specific time of dawn and particular places?

OJH The phrase, 'a melancholic sun' is a rhetoric that is used to convey that the sun in the work is not of great hopefulness. Among the four video images, one shows me making an aggressive sound of a rooster crowing, and another shows me taking a devout posture of 'Surya Namaskar'. My emotions here are both of self-pity and of self-mockery. And yes, I seem to be talking about 'us' by using 'me'. The choice for the time of dawn, which is usually regarded as most apt for a pious mind and service, is made in a certain context of dissonance. For I thought it

was the most dramatic hours when my salutation to the sun in a black suit with bare feet can appear to be serious and at the same time stupid. As for the places I have chosen, they seemed to be the places where people met their mornings rather than having peculiar symbolisms. And the sound of crowing, I did that on the front gate of the house that I have been renting. I think the strong signification of a place may unintentionally lead to one's reading my act of making a crowing sound as being symbolic of something. None of the places has a significant meaning. Different places, people living under different conditions, the sun that they meet at those places ... My choice of places depends on those things.

THS Mudflat Yoga work in 2011 indicated certain change in you as an individual as well as in your art.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emote horizon in the mudflat, you are practicing yoga postures in a black suit. To use a vulgar word, it is literally an act of bovine stool. On the other hand, though, it looks relatively of self-mortification, and in a sense it appears that you are truly sincere about this as a self-cultivating practice. It was to me something like a black comedy that veered to pathos. Furthermore, in this work, instead of the codes that define the previous artistic attitude of yours such as puerile critiquing of reality, childish sarcasm, and seemingly immature derision, such different interpretations as self-examination and self-confession are spontaneously detected. May I conclude that your yoga work in a mudflat is an axis around which your creative work has been diverted?

OJH It was not my deliberate intent to change my artistic style for the last year's solo show, which I had had in five years. The element of rash impulse that is perceived in my previous works is not much unlike me in everyday life. Such personal disposition of mine was naturally integrated into my works. In the works of Mudflat Yoga is found neither such rashness nor aggressive jauntiness at all. When I was working on the work, I was suffering from depression due to my personal problems including family matters, and this was the main reason for that. Also, my depression, I think, prompted me to reconsider or reflect on my previous work. Actually, I had kind of wanted to remove the elements of 'manipulated' signification and sarcasm from my work since long before that. To me, it seemed that my contrived discovery of objects for the creation of certain stories ended up at the point where there was nothing more to the resulting work than being seen and interpreted. The same applies to the factor of sarcasm. In the case of sarcasm, the object of sarcasm is necessarily assumed, and I cannot go beyond the object. Eventually my focus cannot help but to be redirected to the object. It is true that my work has undergone some change through the Mudflat Yoga work. Yet I have no idea where it might lead me to. What is undoubtedly certain is that I surely try to be alertly intuitive in making my works.

THS A mudflat is a natural environment that is separated from the daily life of the general public. You have been at a sandbar, which is an unexpected and seemingly irrelevant place and can be

seen as exceptionally abstract, and has come back to the spaces of everyday life as if you were turning back to the mundane life in your Surya Namaskar. To my understanding, the yoga work at the tidal flat can be interpreted as something of asceticism for certain self-cultivation, but the yoga work in everyday spaces seems, frankly speaking, to be somehow less than persuasive. What is your intention behind your returning to everyday life?

OJH The idea of doing yoga on a tidal flat had possibly come from my reading comic books during my childhood. For instance, such sports comic books as *The Dreadful Outsiders Baseball Team* or *Ring of the Hell*. Especially, those scenes in which players practice in chains on an out-of-the-way island, in which they tumble over in a gravel field, and in which they do batting practice until their hands bleed. Doing yoga on a mudflat is indeed ludicrous. My body gets stuck in the mud and sometimes I get cuts on my feet from sharp pieces of shells. A mudflat is not a good place for doing yoga either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Yet my mind is very serious and sincere when I do yoga there for all I am worth. One might be touched with pity and cheer me up or scoffingly deride me for my seemingly reckless doings or unavailing yet useless efforts. But I thought everyone has done at least once wretched and pitiful acts of this kind. And it seems that I was hankering after the viewers' empathy with such silly acts of mine.

My doing yoga poses at daybreak is threaded with the same context. I wanted to show some meaningless acts in our daily lives, in other words, those that are short of reality, are of much futility, or have no purpose. Hence, the primary concern of the conception of Surya Namaskar was focused not on this and that daily spaces but on people who trail after the sun all day—one who says hello to the sun at dawn. Be that as it may, it is far from my intention to tell the 'beautiful lives' of those people whose works start at the break of the day. In fact, not many people wake up before sunrise to go to work. Nevertheless, I insisted on doing 'Surya Namaskar' very early in the morning. It may be said that it suggests someone who has stayed awake all night or a mother going to a church for an early-morning prayer. This is also quite a ridiculous thing to do. All the more, in a suit, barefoot, and yet reverentially. This i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doing yoga on a tidal flat. This pose becomes very ritualistic when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and I wanted to hold such a ritual in this present city.

THS Well, the everyday environments in Surya Namaskar are less objectified—thus, they are usual or universal surroundings of us—when compared to such spaces that are kitschy or demonstrate the peculiar images of Seoul with a church spire and a wedding hall in your previous works. This change is, I believe, caused by the fact that your work of the early 2000s was of your response to the unfamiliar environment of Seoul which you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immediately after you moved to the city and now you have been accustomed to such environment. You mentioned earlier that you tried to be intuitively alert in making your work, and it seems that these words of yours answer to this. And you also said that you could not surpass the object of sarcasm, this artistic attitude of yours that brought about the change in your point

of view towards our everyday life and reality can certainly be, in a sense, read as a propensity to elud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JH The objects of my sarcasm and jeering have been a variety of fantasies that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as created. For example, things that are erected seemingly to conceal that they themselves know about their non-existent authority: the steeples of the churches in Korea, the dome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edding halls that resemble the castles in fairy tales, Western-style architecture of Korean suburban residential houses, the so-called English Villages that consist of Hollywood action movie props, and sports celebrities. My interest in these subjects was triggered by my desire to tell the bitterness of our reality hidden behind these fantasies. I should admit that those fantasies that veil our pungent reality fascinate me. They are everywhere. But if I do not restrain myself from seeking after such subjects for their captivating glamour, I thought, I might be swallowed by those fantasies. The repetition of that can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critiques as I would wallow in pleasure. That is why I am putting aside explicit and concrete subjects for a little while.

THS Your previous works are closer to superficial sarcasm and lightweight comical mockery than to logical criticism, and they are very pertinent to the depiction of an aspect of our time and culture that are frivolous and flippant due to the aftermath of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of Korea. Also, in some sense, it seems that they correspond to the eyes and emotions of the public. Because of that very reason, the Korean art scene might have expected more in those lines from you, but you have disclosed such change in your art. It is more than understandable that you have moved forward from those tautological works whose diversity depended on only the change of objects, through your yoga work. But what remains curious is that whether or not your yoga work has brought certain changes to your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s reality.

OJH For me, sarcasm and humor are still very effective tools to convey my artistic ideas. Talking about reality tends to be of seriousness. That is why I chose to use the element of sarcasm. Previously, I was an 'observer' of reality standing one step away. For that helped me to see the object of sarcasm much more clearly. In recent years, however, I look at reality from within reality, and this makes it difficult for me to hold targets of sarcasm within the range of my horizon. This difficulty naturally has, I think, led me to something inner, which has resulted in the yoga performance work. If my previous works were funny yet serious, the yoga work is serious yet funny.